예멘의 통일과 석유산업 전망

지난 5월 남북 예멘이 통일을 선포했다. 앞으로 예멘공화국은 풍부한 자원보유량과 경제개혁에 힘입어 금년부터 국제석유시장에 대한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에 따라 아라비아반도 최대의 인구보유국(1,200만명)이 된 예멘의 석유매장량은 40~47.5억배럴, 천연가스 매장량은 7~20조ft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자원들은 대부분 종전 국경지대인 Marib Jawf, Shabwa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통일 이전에는 양국간 공동협력형태로 개발되었으나, 통일 이후에는 그 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이 예상된다.

'89년도 南北예멘 전체의 석유생산량은 19.6만b/d, (北예멘 19만b/d, 남예멘 0.6만b/d)에 불과하였다. 北예멘의 Asad al Kamil유전, 남예멘의 Shabwa유전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멘의 석유생산량은 '90년말에 25만b/d(北예멘 22만b/d, 남예멘 3만b/d), '91년 36만b/d(北 24만b/d, 南 12만b/d)가 되고, '92년경에는 南예멘이 25만b/d 생산으로 北예멘과 필적하게 된다. 즉, 1992년의 예멘 산유량은 50만b/d로서 중동의 강력한 産油國으로 국제석유시장에 부상하게 된다.

예멘공화국의 당면 경제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조달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석유생산을 촉진하는 한편,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개발하여 국내 소비에 충당함으로써 석유수출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90년 상반기의 석유수출량은 직접수출(분기별 계약갱신방식, 기간계약수출)이 85천b/d였고, 공동합작회사에 대한 지분분배량이 90천b/d(대부분 극동지역으로 수출)였다.

예멘의 기본적인 석유정책방향은 ①신규 탐사지역을 외국에 널리 개방함으로써 탐사를 촉진하고, ②이미 발견된 유전(특히 *Shabwa* 유전)은 개발속도를 가속화시키며, ③Aden 정유공장(17만b/d)을 현대화시킴으로써 제품수출을 늘린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Aden 정유공장의 '89년도 정제량은 32천b/d였고 현재의 가동률은 40%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정유공장이 국내 원유를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 쿠웨이트, 이라크 등 인접 산유국의 위탁정제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北예멘에서 생산되는 마리브 경질유를 정제하기 위해서는 시설개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2~3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동향〉

예멘의 자원현황

	北 예 멘	南 예 멘	計
면 적	19.5만 km²	29.0만 km²	38.5만 km²
인 구	950만명	250만명	1,200만명
석 유 매 장 량	10억 배럴	30~37.5억 배럴	40~47.5억 배럴
가 스 매 장 량	7~20조 ft³		7~20조 ft³
석유생산(1989)	190천 b/d	5.7천 b/d	195.7천 b/d
정제능력(1990)	10천 b/d	170천 b/d	180천 b/d